『漢文古典硏究』, 한국한문고전학회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2019, 第38輯, pp.253~291
http://dx.doi.org/10.18213/jkccl.2019.38.1.010

燕行 路程의 절반, 十三山

김 일 환*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사행노정으로서의 十三山
Ⅲ. '十三山'이라는 이름
Ⅳ. 遼澤의 끝, 희망봉
Ⅴ. 가문 의식의 발로
Ⅵ. 雲雨之夢을 꿈꾸며
Ⅶ. 맺음말

<국문 초록>

十三山은 현재 중국 遼寧省 石山鎭 지역으로, 압록강부터 북경에 이르는 노정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다. '十三山'이라는 명칭은 驛站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13개 가량의 산을 가리킨다. 13세기 초에 사신으로 金나라를 다녀왔던 陳澕가 시에서 언급한 이후, '十三山'은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선 사신들이 남긴 시와 글에 등장하였다. 독특하게 '13'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지명과 요동벌(요동평야)의 끝에 우뚝 솟은 지형을 두고 사신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의 숫자를 세어 이름의 정확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수효가 맞지 않다며, '돌산'을 뜻하는 '石山'(shíshān)이 중국어로 발음이 비슷한 '十三'(shísān)으로 와전되었다는 오래된 견해를 지지하기도 했다. 3대에 걸쳐 '13일'에 '十三山'을 통과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대중사행 업무를 수행한 선조들의 노고와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고자 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이는 10년에 3번에 걸쳐 명나라를 다녀왔다는 것으로 '13'을

* 동국대학교 전임연구원 / chukong@hanmail.net

www.kci.go.kr

풀어내기도 했다. 海州-牛家庄-廣寧으로 이루어진 노정으로 이동해야 했던 시기의 사신들은 遼澤이라 불린 긴 습지의 끝에 위치한 十三山 봉우리를 '希望峰'처럼 인식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楚나라 왕과 神女가 사랑을 나누었던 '巫山十二峯'를 언급하면서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했다. 이것은 외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지속적으로 유예된 성생활에 대한 성적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십삼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조선 사신들의 반응을 통해 역사 의식이나 외교라는 공적인 임무 수행의 강박에서 벗어난, 여행으로의 使行이 갖는 한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十三山, 石山站, 陳漢, 遼澤, 巫山十二峯, 燕行(使行)

Ⅰ. 머리말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 본토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현장으로서의 연행 노정에 대한 관심이 싹틀 수 있었다. 비로소 중국 내에서의 이동이 點에서 線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평소 愛讀하던 『熱河日記』를 품고, 200여년 전 燕巖이 직접 걸었던 길을 다시 車로 달리며, 燕巖이 노닐었던 공간을 玩賞하고, 燕巖이 느꼈던 감동과 곤혹스러움을 체험(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초창기 연행 노정에 대한 관심은 丹東에서 北京까지 전체 노정을 縱走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은 신문 연재와 관련이 깊었다.[1] 이렇게 한반도의 수도에서 중국의 수도에 이르는 노정 전체의 대략과 의미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작

1) 燕行路程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熱河日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의 <이규태칼럼>으로 유명한 이규태씨가 『熱河日記』의 노정을 따라 직접 중국을 답사하고 쓴 『新열하일기』(신원, 1997)가 본격적으로 연행 노정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2002년 중앙일보가 한중수교10주년을 맞아 鴨綠江에서 熱河까지 燕巖의 전체 노정을 답사하며 '新연행록'을 연재했다. 중앙일보와 이 답사를 공동으로 주관했던 명지대 한국학연구소는 학술심포지움 <연행학자의 길>을 개최하여, 학술성과로 이끌어냈다.

www.kci.go.kr

업[2]을 시작으로 점차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논의로 진전되었다.[3] 기존에 나와있던 『연행록선집』이나 『국역연행록선집』에 이어, 21세기 초 100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연행록전집』을 비롯하여 『일본소재연행록전집』

2) 중앙일보 답사단의 일원이었던 김태준 교수(동국대)는 <중국내 연행록 노정 답사 연구> 프로젝트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논문을 거쳐 2편의 단행본으로 공간되었다. 소재영·조규익 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2004; 김태준·이승수·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3) 연행노정에 대한 연구 전체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육로사행에서는 이승수, 해로사행에서는 이성형이 지속적인 논의를 보이고 있다. 이승수는 고려말의 對明 사행의 遼東半島 경유 노정을 시작으로 明代의 遼陽-鞍山-廣寧 노정, 淸代의 遼陽-瀋陽-廣寧站 노정, 明·淸 공통의 廣寧-山海關-北京 노정, 18세기 후반의 熱河 노정 등 시대와 공간을 분별하여 陸路 사행의 전구간을 연구 논문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연행사들이 가장 오래 체류한 北京만 남았다.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의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19, 우리한문학회, 2009; 「연행로 중 '遼陽-鞍山-廣寧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연구』47, 한국한문학회, 2011; 1790년 熱河 使行의 '二道井-熱河'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탐색」, 『고전문학연구』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연행로 중의 東八站 고」, 『한국언어문화』4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연행로 중 瀋陽~廣寧站 구간의 노정 재구」, 『民族文化』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연행로 중 廣寧－山海關 구간의 노정 재구－百戰 벌판의 횡단과 역사 변동의 시각 체험」, 『역사민속학』4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연행로 중 遼陽~瀋陽 구간의 노정과 풍물-지리 감각의 갱신과 신흥 왕조의 체험」, 『고전문학연구』50, 한국고전문학회, 2016;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山海關~通州 구간」, 『국문학연구』36, 국문학회, 2017;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 2, 通州~玉河館」, 『민족문화』52, 한국고전번역원, 2018; 이승수 외, 「1780년 연암 박지원의 熱河 행로」, 『한국언어문화』6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이성형은 임진왜란 수습기의 육로사행을 연구한 후 명청교체기의 해로사행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성형, 「燕行錄의 伯夷·叔齊 관련 漢詩 硏究-壬亂 收拾期를 中心으로」, 『漢文學論集』31, 근역한문학회, 2010; 「燕行詩에 나타난 '東八站 區間' 認識樣相 考察-壬亂 收拾期를 中心으로」, 『漢文學論集』35, 근역한문학회, 2012; 「'廟島'와 '嗚呼島'에 對한 文學地理的 考察」, 『대동문화연구』90, 대동문화연구원, 2015; 「麗末鮮初 對明 使行詩의 '淮揚運河 區間' 形象化 樣相」, 『漢文學論集』43, 근역한문학회, 2016; 「『天槎大觀』의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考察-山東 陸路 區間을 中心으로」, 『漢文古典硏究』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明·淸 交替期 對明 海路 使行의 內陸 主要 分岐處 考察」, 『민족문화논총』66, 민족문화연구소, 2017; 「明·淸 交替期 對明 海路 使行의 出港地 考察」, 『漢文學論集』48, 근역한문학회, 2017.

www.kci.go.kr

(전3책),『연행록속집(전3책)이 속속 간행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이 완결되고, 속집이 새로 나오는 한편 원문과 표점본, 번역본이 DB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연행 노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대한 원천 자료가 집적되고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방대한 한문 고전 자료들도 DB로 구축되었고, 四庫全書 간행 이후에 나온 각종 地方志들도 이미지 형태로 인터넷에 제공되면서, 연행 노정에 대한 현지 자료도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 중국의 발전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연행 노정을 구성하고 있는 옛길, 古城과 寺刹은 물론 山과 河川이 본래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옛길의 일정 구간은 도로나 철도가 건설되어 본래 흔적을 잃었고, 그나마 유지되던 옛길은 근대화 이후 새로운 도로가 생긴 이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라지기도 했고, 주요 거점과 그 외곽 지역은 도시가 생기고 확장되면서 자취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오래된 도시의 方形 성곽은 道路가 되었고, 文化大革命에서도 살아남은 關帝廟나 寺刹과 같은 종교 시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重創이라는 이름으로 改漆되거나 변형되었다. 곳곳의 댐은 河川의 流量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山川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다.

6백년 이상 축적된 사행 기록과 최근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답사 보고서·학술 논문·대중 도서 또한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지식인(혹은 전문가)이 쓴 연행록으로 인식될 것이다. 연행록이 중국학 자료이기 이전에 우리 문학과 역사와 지성사의 寶庫인 것처럼 연행 노정 연구 또한 우리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인문지리이자 심상공간에 대한 근원적 탐구 과정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文明 혹은 中華라는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故土에 대한 인식이나 국제 정치 및 역사에 대해서는 강한 민족성을 보이기도 했다. 일례로 조선의 義州에서 청나라의 遼陽으로 갈 때 처음으로 만나는 도시 鳳城과 그 인근의 鳳凰山城을 살펴보자. 개별 사행록에서는 필자 자신의 지식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에 머물렀지만, 사행 노정 연구자들에 의해 鳳凰山城이 실제로 고구려의 安市城인가라는 근본

www.kci.go.kr

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楊萬春이라는 영웅 신화가 탄생하여 流轉된 과정, 조선 지식인들의 故土 의식, 唐太宗에 대한 인식에서 중화질서라는 보편성과 강렬한 민족의식의 대립을 읽어내었다.[4] 이렇듯 조상들과 후손들의 체험과 지식, 인식이 혼합된 중층적 독해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遼寧省에 있던 鳳凰山은 우리의 '공간'이 되었다.

이와 상대적으로 역사라는 거대 담론이나 민족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旅行으로서의 燕行'의 면모를 살펴볼수 있는 노정도 있다. 우리 민족의 故土 영역 밖에 있으면서, 中華의 입장에서는 關外이되, 漢族의 주요 거점이 아니며, 明淸交替期의 격전에서도 비껴갔던 곳, 벌판에 우뚝 솟은 '13개의 봉우리'라는 특이한 자연 경관으로 命名된 '十三山'이 그런 노정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중국 영역 내에 있는 연행 노정의 절반이 되는 곳[5]으로 사행에 있어 목적지까지, 그리고 故國까지 가는 길의 중간[6]으로 여행자로서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는 곳이다. 선행연구에서 十三山을 사행 구간 중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것[7]과 달리 이 논문은 十三山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十三山'이라는 특이한 명칭의 유래, 그 이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함의를 만들어낸 연행사들의 사연, 아울러 윤리와 사상 혹은 역사의식의 강박에서 벗어나 여행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이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이승수, 「燕行路上의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신두환, 「朝鮮 燕行錄에 나타난 '鳳凰山의 민족사' 담론」, 『동방한문학』 58, 동방한문학회, 2014;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漢文學報』31, 우리한문학회, 2014.

5) 李坤, 『聞見雜記』, "凡燕京路程, 自我漢陽至灣上一千七十里, 自灣府至鳳城一百五十里, 自鳳城至瀋陽四百四十三里, 自瀋陽至山海關八百三里, 自山海關至燕京六百六十里, 通計三千一百二十六里, 除我境實爲二千五十里, 中分則十三山爲正半."

6) 洪大容, 「沿路記略」, 『燕記』, "自柵門抵北京, 十三山實爲半道, 使還至此, 先送軍牢, 報安信于義州, 一行因付家信, 舊例也."

7) 이승수, 「연행로 중 廣寧－山海關 구간의 노정 재구－百戰 벌판의 횡단과 역사 변동의 시각 체험」, 『역사민속학』 4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김동석, 「高麗末 權近의 使行과 그 의의」,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2017.

www.kci.go.kr

Ⅱ. 사행노정으로서의 十三山

1123년(선화 5년) 金 太祖[阿骨打]가 죽고, 같은 해 9월에 太宗이 즉위했다. 이에 1125년 宋은 許亢宗을 파견하여 새로운 황제의 登極을 축하하는데, 그는 복귀 후 자신의 사행을 기록한 『行程錄』을 올렸다.

> 榆關으로부터 나와 동쪽으로 갔다. 길은 손바닥처럼 평탄했는데, 여기에 이르러 약간 오르막이 되었고, 十三山 아래를 경유했다. 문충공 구양수가 『오대사』에서 인용했던 「胡嶠北陷記」에서 말하는 '十三山'이 곧 여기다.[8]

許亢宗은 榆關을 통해 萬里長城 밖으로 나와 동쪽으로 이동하여 十三山에 닿았다. 당시 金의 수도는 上京會寧府[흑룡강성 하얼빈]이고 北宋의 수도는 開封[하남성 카이펑]이었다. 따라서 許亢宗은 陸路로 北行했고, 南行으로 十三山과 조우한 고려·조선의 사신들과 반대 방향에서 十三山을 맞닥뜨렸다. 1153년 3월 海陵王이 中都大興府[지금의 북경]로 천도하기까지 金으로 향하는 사신들은 모두 北行해야 했다. 한편 北京은 1214년 宣宗이 수도를 汴京[開封]으로 옮길 때까지 61년 동안 金의 수도가 되었다가, 1215년 몽고에 의해 함락되면서 불태워졌다. 1267년 쿠빌라이 칸이 중국 대륙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北京 지역에 大都를 건설하였고, 몽골 고원의 카라코룸으로부터 천도하여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 閭山盡處十三山 의무려산 다한 곳에 십삼산
> 溪曲人家畫幅間 시내 굽이 인가는 그림 같네
> 何日秋風半篙水 언제나 가을 바람에 상앗대 반쯤 물이 찰 때
> 小舟容我一蓑閒 작은 배에 몸을 싣어 도롱이 입고 한가할 것인가[9]

---

8)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自出榆關東行, 路平如掌, 至此微有登涉, 經由十三山下, 歐陽文忠敍胡嶠所說'十三山', 即此."

9) 蔡珪, 『御訂全金詩增補中州集』(四庫全書本) 卷15, 「十三山下村落」.

www.kci.go.kr

다음으로 十三山을 노래한 이는 金의 蔡珪(?~1174)로 알려져 있다. 그는 1151년 진사에 합격한 후 太常에까지 오른 저명한 문인[10]으로 金의 詞宗으로 꼽히는 인물이다.[11] 北京 천도 이전에 진사에 합격하기도 했고, 관직 생활을 하면서 上京과 中都를 왕복했던 것으로 보인다.[12] 지금의 東北 三省과 河北 평야지대까지 석권한 金에 있어 十三山이 속한 遼西 지역은 '邊方'이라고 볼 수 없었다. 醫巫閭山은 남북으로 긴 이 나라의 '중간'으로 인식되었다.[13] 따라서 醫巫閭山에 이어진 산줄기 혹은 醫巫閭山이 다한 곳으로 불리던 十三山은 두 王都 사이의 중간지대로 무료한 여행의 한복판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醫巫閭山을 보고 남하하던 그는 산과 계곡과 인가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十三山 아래에서 한가로이 배를 띄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후 地理書에 全文이 아니라 起句와 承句만 인용되었는데, 지형 변화로 시내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문학사에서 十三山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언급은 『補閑集』에 있는 陳澕와 李允甫가 남긴 시 3편이다.[14] 金에 書狀官으로 다녀온 이가 翰林院에서 숙직하던 陳澕와 李允甫에게 十三山을 제재로 천근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각기 1편과 2편의 칠언절구로 十三山을 노래했다.[15]

---

10) 『金史』 권125, 「列傳」 제63, 文藝 上.

11) 李裕元, 「華東玉糝編」, 『林下筆記』 권33.

12) 蔡珪의 시가 전하는 『中州集』에는 「醫巫閭」, 「閭山」, 「十三山下村落」, 「燕山道中」 등의 시편이 보인다.

13) 蔡珪, 앞의 책, 「醫巫閭」, "幽州北鎭高且雄, 倚天萬仞蟠天東. 祖龍力驅不肯去, 至今鞭血餘殷紅. 崩崖暗谷森雲樹, 蕭寺門橫入山路. 誰道營丘筆有神, 只得峯巒兩三處. 我方萬里來天涯, 坡陁繚繞晉風沙. 直教眼界增明秀, 好在嵐光日夕佳. 家山葱蘢生處樂, 此山之間亦不惡. 他年南北兩生涯, 不妨世有揚州鶴."

14) 대중국 사행문학 가운데 육로사행은 자료가 많은 明·淸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오늘날의 北京을 수도로 한 최초의 국가는 金이었다. 高麗는 金에 1백여년에 걸쳐 조공했지만, 이때 생성된 詩文은 드물었다. 이런 측면에서 『補閑集』의 이 기록은 매우 귀한 자료지만, 이제까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陳澕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김성기, 「陳澕論」, 『한국한시작가연구』 1권, 한국한시학회, 1995.

www.kci.go.kr

巫山十二但聞名 무산 열두 봉우리 이름만 들었는데
驛路偷閑午枕涼 역로 한가할 때에 서늘한 곳에 누워 보네
剩骨一峯雲雨惱 뼈만 남은 한 봉우리 비구름에 시달리는데
傍人應笑夢魂長 옆 사람은 분명히 꿈이 깊다 웃겠지

六七山抽碧玉簪 예닐곱 산 푸른 옥비녀 삐져나온 듯
葱籠佳氣射朝驂 맑은 기운 서리어 조회 참말 비춰 주네
從今嵩嶽嘉名減 지금부터 숭악산은 고운 이름 줄어들어
只數奇峯二十三 기이한 봉우리 스물셋을 셀 뿐이네.

少年蠟屐好登山 젊어 나막신 신고 산 오르기 좋아하여
踏盡衡巫岱華間 형산 무산 대산 화산 다 가 보았네
五老八公遊未遍 오로와 팔공은 두루 다 못 가 봤으니
不知藏此此中慳 감춰 두고 이 속에서 아끼는 줄은 몰랐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모두 사신으로 金에 다녀왔다.[16] 고려는 1126년(인종 4) 稱臣하기 시작하여 의종-명종-신종-희종-강종을 거쳐 1234년(고종 21) 金이 망할 때까지 108년간 대금 외교를 지속하였다.[17] 十三山은 對金 사행의 주요한 노정이었고[18], 高麗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

15) 崔滋, 『保閑集』, "陳玉堂澣ㆍ李蓬山允甫, 同夜直禁林, 時有前入金書狀官某言, 廣寧府道傍有十三山, 往來客子題詠頗多, 皆淺近未能破的, 請兩君賦之. 陳卽呼援筆云: '巫山十二但聞名, 驛路偷閑午枕涼. 剩骨一峯雲雨惱, 傍人應笑夢魂長. 李云: '六七山抽碧玉簪, 葱籠佳氣射朝驂. 從今嵩嶽嘉名減, 只數奇峯二十三.' 又云: '少年蠟屐好登山, 踏盡衡巫岱華間. 五老八公遊未遍, 不知藏此此中慳.' 陳詩以意, 李詩以言, 兩首之言, 不如一首之意." 이하 한시 번역은 최자 지음, 박성규 역주, 『역주 보한집』, 보고사, 2012을 참조함.

16) 진화가 서장관이 되어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남긴 시가 현재 3-4편이 전한다. 「奉使入金」(오언절구, 『補閑集』), 「過海州」(칠언절구, 『東文選』 권20), 「詠廣寧府十三山」(칠언절구, 『補閑集』), 「使金通州九日」(칠언고시, 『東文選』 권6). 「過海州」의 '海州'를 '海州衛'로 추정하였다.

17) 유영옥, 「『고려사』 소재 대금(對金) 외교문서의 특징」, 『석당논총』57,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3, p.218.

18) 박한남,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硏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3; 한정수, 「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사학연구』91, 한국사학회, 2008, pp.93-123; 김현주,

www.kci.go.kr

며 시를 지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 일화를 남긴 崔滋는 李允甫가 '말[言]'로 쓴 2편의 시가 陳澕가 '뜻[意]'으로 지은 1편의 시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李允甫는 '6+7(=13), 23'이나 '5+8(=13)'처럼 13이나 13을 활용한 숫자를 중국의 유명한 산과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였다. 반면 陳澕는 '13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十二峰'과 '巫山之夢'을 가져와 이국 땅에서 힘들고 외로운 자신[一峰]에게 연결하여 긴 노정을 걷고 있는 男性으로서의 使臣의 처지를 그려내고 있다. 李允甫는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玉堂 안에 앉아 중국의 유명한 산을 구경했다는 자랑을 하고 있다. 반면 陳澕는 피곤에 지쳐 十三山驛에 누워 있으면서 모처럼의 달콤한 꿈에 미소를 짓고 있다.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며, '中國'으로 가는 사행로의 중간에 있는 '十三山'이 강조됨으로써 高麗人이 갖고 있는 심상지리의 일면이 자연스레 노출되었다. 自國에서 유유자적하며 길을 걷고 있는 蔡珪와 비교하면, 自意과 관계없이 '사신으로 나선 외국인 陳澕'라는 '의미[意]'가 잘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李允甫의 시가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외교적 임무인 使行을 遊覽이나 觀光으로 여긴 사람들이 존재했다. 결코 쾌적하다고 할 수 없는 긴 여정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다가 그 꿈을 이룬 행복한 여행자도 있었다. 괴롭게 임무를 수행하던 이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정의 고단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보호와 감시의 상황 속에서 운신의 폭이 없던 使臣들은 말과 글로써 답답함과 곤혹스러움을 풀어내고자 했다. 李允甫가 언어유희로 四方의 명산을 유람했음을 자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신으로서의 처지를 드러내는 十三山과 경승지로서의 十三山이라는 두 가지 면모는 이후 조선 시대 사행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주되었다.

「高麗 明宗代 武臣使臣의 출현과 활동」, 『사학지』56권, 단국사학회, 2018, pp.1-32 참조.

www.kci.go.kr

Ⅲ. ‘十三山’이라는 이름

十三山이라는 이름을 만난 사행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글자 그대로 13개의 산으로 이루어졌는가 세어 보는 것이다. 金克成(1474~1540)은 크고 작은 봉우리를 세어보니, 큰 봉우리만 치면 13개에 못 미치고, 작은 봉우리까지 합하면 13개 보다 많았다고 하였다. 그는 ‘十三山’을 가족으로 비유했다. 높은 두 봉우리는 어른이 되고, 그 보다 낮은 열아홉 봉우리는 자손과 같다며, 마음 속으로 아름답게 보이니 굳이 이름과 실제 개수가 다름을 따지지 말자고 하였다.[19] 그런데 그가 크고 작은 봉우리를 모두 세어 보게 된 것은 ‘十三山’이 13개의 봉우리에서 유래한 이름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十三山’의 유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인물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살펴보자.

> 十三山驛 앞에 石山이 있어 三峰이 대치하였는데 通事 李玄이 말하기를 “十三山은 石三山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중국말에 ‘石’과 ‘十’은 음이 다 서로 같다” 한다. 그 말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에는 ‘石’으로 쓴다.[20]

高麗(918~1392)는 朝貢-册封의 관계를 특정 국가로 고집하지 않았다. 朝貢의 대상을 後周(951~960)에서 北宋(960~1125)으로, 다시 거란족의 遼

19) 金克成, 「發十三山【峯有大小, 考共數則大者不及, 小者過之】」, 『金先生憂亭集』 권1(한국문집총간 18집), "雙燦岌巢丈人尊, 八九高低似子孫. 自是胸中有佳處, 世間名實不須論." 김극성은 연산군 6년(1500)에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중종 16년(1521)에는 정조사로 사행을 다녀왔다. 이 시는 1521년 사행 때 지었다.

20) 權近, 「板橋驛欲發程, 擔夫有未至者, 留待其來, 及晩而行, 路淖馬跌, 衣裝盡濕. 夜行二十里, 至蘆溝鋪, 前途水深, 不得復進, 有屋低濕, 欝蒸良苦. 屋上覆以土, 平坦如臺, 登攀待朝, 蚊蚋之苦, 倍加於前. 黎明, 行至十三山驛, 尹平理以下皆跌, 路泥馬困也」, 【自注: 十三山驛前有石山, 三峯對峙, 通事李玄云, ‘十三山無乃石三山耶? 華言石與十聲相近, 其言甚當. 故詩作石.】

www.kci.go.kr

(937~1125)로, 여진족의 金(1115~1234)으로, 몽골족의 元(1234~1369)으로, 다시 한족의 明(1368~1644)으로, 대륙의 정세에 따라 편의적으로 바꾸었다.[21] 고려 말인 1389년(우왕 13) 權近의 사행[22]은 明으로 사신을 보낸 지 얼마 안되었을 때였고, 더군다나 이태 전인 1387년 나하추[納哈出]가 항복하기 전까지 遼東의 북부 지역은 北元 세력이 웅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高麗 사신은 주로 遼東半島와 山東半島를 잇는 海路를 이용하였다. 현재 鄭夢周(1372, 1386), 金九容(1372), 鄭道傳(1384.2), 李崇仁(1386.9)의 사행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모두 海路를 이용했으므로 遼西 지역인 十三山을 경유하지 않았다. 權近도 南京으로 갈 때만 北京을 경유하는 육로로 이동했고, 돌아올 때는 山東半島를 경유한 해로를 이용했다. 이후 朝鮮 건국 후의 李詹(1400), 李稷(1401)도 遼東半島와 山東半島의 해로를 이용했다.[23]

따라서 權近과 그의 일행들은 十三山에 13개의 봉우리가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 遼東에서 遼澤을 횡단하여 遼西로 넘어와 남행하는 權近의 여정이 예외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權近 일행은 낙오한 동행인을 기다리느라 예정보다 늦게 출발했기에[24], 한밤 중 遼澤의 습지에서 진흙탕에 뒹글 듯이 전진했고[25], 無樑屋의 평탄한 지붕에 올라가 젖은 옷을 말리려다 모기에 쫓기는[26] 등 고난의 긴 밤을 보내고 온갖 고초 끝에 맑은 샘물이

21)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p.42.

22) 주경렬, 「權近의 使行詩 硏究-『奉使錄』을 中心으로」, 『한문학논집』16, 근역한문학회, 1998, pp.47-72; 최강현, 「韓中使行文學에 관한 연구(3)-權近의 奉使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6집,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8, pp.29-48; 엄경흠,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제1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pp.181-215.

23) 고려 말의 사행 기록과 노정에 대해서는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의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19, 우리한문학회, 2009, pp.12-13에 잘 정리되어 있다.

24) 權近, 앞의 시, "淸晨欲發程, 擔夫有未至. 淹留待其來, 日已將夕矣."

25) 權近, 앞의 시, "馬倒泥水中, 我服盡沾漬. 因思式微篇, 永矢向君志. 扶携倒蘆溝, 前途復多水."

26) 權近, 앞의 시, "小屋甚低卑, 難袪鬱蒸氣. 屋上平如臺, 登攀猶可喜. 又苦蚊蚋多, 咬以如針觜. 驅除無暫休, 達朝不得睡."

www.kci.go.kr

있는 驛에 도착[27]한 터였다. 지친 그들에게는 驛舍 앞에 있는 돌산[石山] 3개만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쉬었기에 나머지 10개가 앞에 더 놓여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權近 일행은 十三山의 숙소에서 더럽혀진 옷을 빨고, 목욕한 뒤에 휴식하며, 오늘의 고생을 잊지 말자며 시를 지었던 것이다.[28] 중국어를 알고 있는 通事는 당장 눈 앞에 있는 돌산[石山] 3개[三]와 지명인 '十三山'을 연결시키면서, '石'과 '十'이 같으니 '石三山'이 맞다고 했고, 權近도 동의하여 바로 詩語로 사용한 것이다.

15세기 후반 洪貴達(1438~1504)은 사행에 나서기 전부터 '十三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직접 세어 보고 싶은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 사행에 나선 그는 오랜 바람을 실행하였다.

> 내가 해동에 있을 때에 十三山이란 것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 되었다. 마음으로 적이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눈앞에서 숫자를 세어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 하였다. 오늘 다행히 사신의 명을 받들어 驛舍를 지나다 이른바 十三山이란 것을 보았는데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은 겨우 오륙칠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가지친 것이거나 새끼친 것들이어서 마치 이들과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과 같아, 분명히 갈라져 다른 숫자로 명목을 세울 수는 없었다. 아아, 사람들의 말은 곧바로 믿기에 부족하니 이름과 실질이 곧바로 어울리기 힘든 것이 이와 같구나. 내가 보니 사대부들이 성대한 명성을 자부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모두 모습만으로 공경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보며 관찰하게 되면 그 실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다. 어찌 홀로 이 산만 그러하겠는가. 시를 지어 物態가 항상 그러함에 부치고 또한 스스로 경계하려 한다.

奇峯離立氣相涵	기이한 봉우리 홀로 서서 기운이 서로 혼융하여
萬里遊觀此勝探	만리 밖에서도 이 경치 찾으러 놀러오네
周室臣隣惟見十	주나라의 신하는 오직 열 사람을 말하고

27) 權近, 앞의 시, "及至石三山, 始悅泉甘美."

28) 權近, 앞의 시, "新浴且澣衣, 自慰仍撫己. 故來各相逢, 說此應冷齒. 出險要不忘, 聊以作詩記."

www.kci.go.kr

漢庭豪傑只云三　한나라의 호걸은 다만 셋을 꼽는다네
常怪此山兼象美　이 산이 상징과 아름다움을 다 가졌음을 이상이 여겼더니
細看今日信空談　오늘에야 자세히 보니 다 헛된 말이었구나
非才我亦浮名盛　재주 없는 나도 뜬 명성이 퍼져서
誤寵如今得不慙[29]　오늘처럼 총애 받는 것 부끄럽기만 하구나.

洪貴達은 1481년(성종 12) 明 皇太子의 생일을 축하하는 千秋使가 되어 북경을 다녀왔다.[30] 서장관은 25세의 申從濩(1456~1497)였다. 洪貴達은 十三山을 구성하는 13개의 봉우리가 모두 均質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봉우리가 5~7개에 불과한 현실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독립적인 봉우리로 起立하지 못하고 품안의 아이처럼 큰 봉우리에 기대고 있는 형국이었다. 洪貴達은 이를 名實이 相符하지 못한 현실, 명성 높은 사대부도 실제 삶은 그 이름에 값하지 못한 점과 연결시켰다. 首聯에서는 산맥과 연결되지 않고 평야에 우뚝 서 있는 十三山의 형세와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13개'의 봉우리를 周公 旦과 召公 奭 등 武王을 도와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 시대를 이룬 周나라 10인의 훌륭한 신하와 蕭何·張良·韓信 등 漢나라 초의 걸출한 3명의 호걸로 호명하였다. 특히 뒤의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역량을 발휘하여 劉邦을 도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 인물들로 다른 누구에게 얹혀 가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궁금하기만 했던 十三山을 직접 목격하면서 실망했다는 頸聯을 거쳐

29) 洪貴達, 「十三山驛詩 并序」, 『虛白亭集』 권1(한국문집총간 14집), "余在海東, 聞有十三山者久矣. 心竊奇之, 常恨不得面目而枚數之. 今幸奉使過傳舍, 見所謂十三者, 可指數者僅五六七, 餘皆枝流餘裔, 如兒孫在翁婆懷抱中, 不可歧而別數充其目. 噫! 人言之不足信, 而名實之難副也, 如是夫. 余觀士大夫之負盛名者, 人皆貌敬之, 及至詳視而熟察, 鮮有不失其實者, 豈獨茲山也哉. 詩以寓夫物態之常, 且自警云." 번역은 홍귀달 지음,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김남이 외 옮김, 『허백정집 1』, 점필재, 2014, pp.160-161의 내용을 가감함.

30) 洪貴達의 千秋使行과 使行詩에 대해서는 김용태, 「虛白亭 洪貴達과 초기사림파」, 『동양한문학연구』28, 동양한문학회, 2009, pp.63-88; 이주현, 「연행시에 나타난 홍귀달과 성현의 작시 경향 비교 고찰」, 『중국문학』68,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pp.111-139 참조.

www.kci.go.kr

마침내 문단의 명성에 힘입어 총애를 받아 사행에 나설 수 있던 자신도 그런 것은 아닌가 성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洪貴達은 十三山을 출발한 직후 네 수의 시를 더 지었지만[31], 十三山에 대한 평가를 고치지 않았다.

> 十三山의 숙소에 이르니, 갈 때 유숙했던 집이었다. 일찍이 역관들의 말을 들으니, 십삼산의 봉우리 모습은 갈 때에 보면 그 숫자가 다 차지 못하는 듯하나, 돌아올 때에 바라보면 그 숫자가 다 찬다고 하였는데, 선배들의 日錄에도 이러한 말이 있었다. 오늘 오면서 십여 리 밖에서 자세히 바라보니, 13개의 봉우리가 모두 눈앞에 역력히 보이니, 참으로 기이하게 여길 만하다.[32]

李宜顯은 十三山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봉우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13개'에 미달한다고 하다가 귀국길에는 다시 13개가 맞다며 의견을 수정하는 일이 많다면서, 자신 역시 그 기이한 체험에 했다고 하고 있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정치하게 따진 연행 기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산맥으로 이어진 조선의 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요동벌, 그리고 북경이 포함된 화북평야 지대를 모두 경험한 이후에 山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닌가 추정해볼 따름이다. 한 가지 특기할 일은 앞서 살펴본 許亢宗이나 高士奇처럼 北行으로 十三山을 만난 明나라 사신들에게서도 '13'을 부정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十三山'이 '13개의 봉우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숫자 따위를 세지 않았다. 柳夢寅(1559~1623)은 1591년(선조 24)에 質正官[33], 1596년에 진위사 서장관, 1609년에는 성절사 겸 사은사로 20

---

31) 洪貴達, 「發十三山驛, 途中口占二絕」(칠언절구 2수), 『虛白亭集』 권1; 「發十三驛, 途中口占」(칠언절구 1수, 칠언율시 1수), 『虛白亭集』 속집 권4.

32)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陶谷集』 권29(한국문집총간 181집), 到十三山, 去時所宿家. 曾聞譯輩言'十三山峰形, 去時見之, 似未滿其數, 而歸時望之, 其數皆滿'云, 而先輩日錄亦有此語. 今日來時, 十餘里外, 仔細望見, 則十三之數, 皆歷歷於眼中, 殊可奇也.

33) 그는 이듬해(1592년) 귀국하다가 압록강을 넘기 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음을 들었고, 5월에 황해도 봉산에서 복명했다.

www.kci.go.kr

년이 못되는 기간 동안 총 세 차례나 중국에 다녀왔다. 그의 사행 기록은 마지막 사행에 집중되어 있다.[34]

十三山은 광녕 서쪽 90리에 있는데 거주민들은 혹 '石山站'이라고도 하니, 이는 十三山의 중국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韻書를 상고해 보면, 十과 石, 三과 山, 山과 站은 각기 다른 음이다. 우리나라의 음 또한 楚나라와 越나라처럼 판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으니 어째서인지 모르겠다. 聖人이 소리를 律로 만들어 말을 하면 모두 韻을 이루고 또 五聲으로 구분하여 책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경전에 나온 것으로 말하면 상평성 刪韻과 하평성 覃韻을 통운하여 협운이 되는 것도 없으며, 入聲 陌韻과 緝韻을 통운하여 협운이 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각각의 소리를 똑같이 발음하여 차이가 없으니 괴이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궁벽한 외방에 있어 말에 조리가 없어 음률을 논할 수는 없는 듯하나 고운을 참조해 보면, 十三山과 石山站의 발음이 다른 것은 멍청하든 똑똑하든 누구라도 구별할 수 있다. 이는 고운의 소리와 맞는 듯하니 어째서인가.

우리나라 문자는 기자에게 받았으니 은나라와 주나라로부터 전해진 것이며,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또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 수로로 중국 강남과 통하였다. 강남은 合口聲을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음은 곧 三代의 遺音이니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음에 질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진나라, 육조, 오계, 원나라 3,4백년을 거쳐오는 동안 때로 夷狄이 어지럽혔으니 예악과 풍속도 오히려 보전하기 어려웠는데 어찌 삼대의 옛 것

34) 문집 권1에 있는 「星槎錄」 3제 6수, 후집 권1의 「星槎錄」 1수가 1591년부터 1592년 5월까지 질정관으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남긴 시이다. 문집 권2의 「朝天錄」 40제 56수, 후집 권1의 「朝天錄」 50제 66수, 권2 「朝天錄」 59제 130수가 1609년 다녀오면서 지은 시이다. 한참 전란 중이었던 1596년 겨울에 출발해서, 이듬해 1월 정유재란 발발 소식에 급거 귀국했던 두 번째 사행에서는 시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시는 문집에 詩體와 관련없이 시기·내용별로 묶여 있는데, 삼도순안어사로 세자(광해군)을 호종하여 삼남 지방을 두루 다닐 때 지은 「南繡錄」(1594, 4제 5수)과 함경도 巡撫御史로 제수되어 북관을 다니면서 지은 「北繡錄」(1597, 17제 27수) 사이에 있어야 중국 기행 시집이 보이지 않는다. 「星槎錄」에 수록된 시 모두가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 지은 것임을 생각할 때, 조국의 戰場을 이탈해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35]

「十三山辨」은 '十三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집요하고 예리하게 파헤친 산문이다. 그는 十三山을 石山站으로 부르는 현지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다. 韻書에 따르면 十과 石, 三과 山, 山과 站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하평성 覃韻인 '三'과 상평성 刪韻인 '山'은 물론 入聲 緝韻의 '石'과 入聲 陌韻의 '十'은 시에서 通韻하는 일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각 그 소리를 똑같이 발음하여 차이가 없는 일은 괴이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十三山[shísānshān]과 石山站[shíshānzhàn]이 얼마나 유사한 발음인가를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다. 柳夢寅이 문제 삼는 것은 '다른' 것을 '같다'고 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현실이었다. 그는 順天府를 비롯한 '천하의 북쪽'이 이적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江南과 다른 음운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산문은 세 번째 사행[36]에서 노래한 「十三山」 시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사행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지은 작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임진·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앞선 두 차례의 연행을 통해 확보한 명나라의 문물과 제도의 지적 토대 위에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모델으로서의 明나라의 구체적인 문물과 제도에 대

35) 柳夢寅, 「十三山辨」, 『於于集』. "十三山在廣寧西九十里, 居民或稱石山站, 與十三山華音相類也. 攷之韻册, 十與石, 三與山, 山與站, 皆殊音. 我國之音, 亦懸判楚·越如古韻然, 而中國之概而同之, 未知何以耶. 聖人聲爲律, 發言皆成韻, 又分五聲, 著之方策, 其出諸經傳者, 未有通上·下平聲刪·覃爲叶, 通入聲陌·緝爲叶者, 今也中國同其聲不異之, 可怪也. 我國僻處外壤, 話言無理, 似不可論音律, 然而古韻參之, 十三山之異石山站, 無愚智可辨之, 是則似與古韻諧聲, 何者? 我國文字受之箕子, 傳自殷·周·過羅·麗至我國不變, 又自漢·唐·宋, 由水路通中國江南, 江南用合口聲, 至于今, 與東音不相遠. 然則我國之音卽三代遺音, 而質之漢·唐·宋者也. 若中國則出入晉·六朝·五季·胡元三四百年間, 或戎狄以亂之, 禮樂風俗尙難保, 矧區區音韻, 豈獨全三代之舊乎?" 번역은 김홍백·권진옥 옮김, 『어우집 5』, 학자원, 2018.12, pp.501-504.

36) 유몽인의 세 번째 사행에 대해서는 이승수, 「1609년 여름 柳夢寅의 燕行 길의 몇 장면-압록강에서 廣寧까지」, 『한국시가문학연구(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30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에 자세하다.

www.kci.go.kr

한 관찰과 이해가 조선 전기에 있어 최고 수준[37]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柳夢寅은 「朝天錄」에서 명나라를 긍정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명나라에 비판적으로 바뀐 것은 後金의 興起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16년 누르하치의 稱帝, 1618년 撫順 함락, 1619년 深河戰役에서 朝明 연합군의 괴멸적 패배, 육로로 떠났던 李必榮(1573~?) 사행의 海路 귀환으로 확인되는 明의 遼東 지배력 상실[38] 등 漸增하는 後金 세력을 목도하면서 다시 '오랑캐' 세상이 되리라는 징후적 독해의 결과가 「十三山辨」의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대명사행에서 柳夢寅이 십삼산에 관심을 보였다면, 대청사행에서는 姜浩溥(1690~1778)만큼 집요하게 十三山이라는 이름을 음미한 사람은 드물었다.

> 산[十三山]은 큰 길의 옆에 있는데, 들판 한가운데에 뽑아 올려져 사방에 산줄기가 붙어 있지 않아 마치 정원에 怪石이 놓여 있는 것 같다. 봉우리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고, 그 숫자는 13개에 그치지 않는다. 웅크리고 있는 것, 치닫는 것은 마치 호랑이 같기도 하고, 날짐승 같기도 하다. 눈썹을 칠하는 먹처럼 진한 바탕에 파도가 휩쓴 듯한 흔적의 무늬가 있다. 김군은 "이 산은 마치 예전에 물속에 있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옮겨지면서 큰 들의 머리로 노출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제법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일명 石三山이라고 한다. 전하는 말에 본래는 '石山'으로 불리다가, 여기서 몇 리 떨어진 곳에 객점[店舍]이 있었고, 그 객점을 石山店이라고 불렀다. 이로 인해 발음이 잘못되어 한번 전하여 石三山이 되고, 다시 전해지면서 十三山이 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39]

---

37) 이승수, 「柳夢寅의 연행 체험과 중국 인식」, 『동방학지』13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pp.351-352.

38) 이성형, 「明·淸 交替期 對明 海路 使行의 出港地 考察」, 『漢文學論集』48, 근역한문학회, 2017, pp.262-263.

39) 姜浩溥, 『桑蓬錄』 1727년 12월 13일, "『考盛京誌』曰: '十三山在錦州, 城東七十五里而峯巒十三, 故名之也. 蓋茫茫大野中, 忽有石峯, 不知何來湧出, 地面森羅, 戍削甚奇, 特可愛, 其北又有小崑崙山及雄鳳山.' 按『遼史』曰: '遼穆宗葬世宗於顯陵之西十三山'云. 顯陵者。卽東丹王突欲之墓. (중략) 又八里卽十三山, 山在大路傍, 而拔出野中, 四無附麗, 如置怪石于庭, 峯之大小不一, 數之不止于十三, 而蹲者·馳者·如虎者·如飛者, 其色黛黑, 文有似乎波浪動蕩之痕, 金君謂: '此山, 似是舊在水底, 仍海徙而露出大野頭.' 可謂大有

www.kci.go.kr

十三山의 지질학적 생성 요인을 추정하는 한편, 十三山이라 불리게 된 유래를 여러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저 돌산[石山]으로 불리다가, 주변의 객점과 결부되어 '石山店'이 되었다가, 잘못 전해져 '石三山'이 되고, 다시 오류가 발생하여 '十三山'이 되었다는 속설은 앞서 柳夢寅이 문제삼았던 十三山에서 石山站으로 '잘못' 불리게 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셈이다. 十三山에 대해 논의하는 초입에 『盛京誌』를 인용하여 지형에 따른 명명임을 적시하고도 여러 이설을 덧붙였던 것이다. 姜浩溥의 사행은 1727년에 있었지만, 十三山을 다루고 있는 漢文本은 그의 증손인 강재응이 1838년에 한글본을 대본으로하여 다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十三山'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반드시 姜浩溥가 사행 당시에 피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한문본에는 姜浩溥의 사행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참고문헌이 노출되기도 한다. 十三山에 대해서도 李德懋의 1788년 사행 기록 『入燕記』[40]나 李海應(1775~1825)의 1803년 사행기록 『薊山紀程』의 내용이 겹쳐진다.[41]

理矣. 一名石三山. 諺傳, 本呼爲石山, 去此數里, 地有店舍, 名其店爲石山店, 故因轉舌之訛. 一傳而爲石三山, 再傳而爲十三山云. 未知果否. 按『一統志』, 在廣寧右屯衛北二十里, 山下有洞, 山上有池. 『五代史』·「胡嶠北行記」, '東行過一山, 名**十三山**云.' 自此西南, 去幽燕二千里. 又『遼史』, '燕王淳討武朝彦, 至乾州**十三山.**' 皆此. 金蔡珪詩'閭山盡處**十三山,** 溪曲人家畫幅間'云云, 則**十三山**之名, 厥惟舊矣. 自義州至燕京, 此爲半程, 行二里, 曰十三山店, 人居頗盛." 밑줄 친 부분만 번역함.

40) 李德懋, 『入燕記』 1788년 4월 29일, "十三山在路南野中, 山皆蒼黑, 石踈秀可愛, 峯巒只六七, 如廣庭列置太湖石. 本名石森山, 石與十, 華音相同, 故今名十三山, 非謂其十三峯也."

41) 李海應, 『薊山紀程』, 1803년 12월 11일, "十三山, 皆石也. 本名石山, 山无一草一木, 勢尖而高, 如魚頭之齊仰喁喁, 列而爲十三峰, 故有是名. 然數其峰巒, 則非但大小之不一, 亦不止十三. 蓋華音之稱石山站, 若呼十三山者, 是故訛傳爲十三山. 閭山一支, 西南逶迤, 斷爲平原, 而忽地崛起, 但全體太露, 岌然無明潤之色."

www.kci.go.kr

Ⅳ. 遼澤의 끝, 희망봉

명나라 때의 육로 사행은 遼陽에서 牛家庄을 경유하여 沙嶺, 高平, 盤山을 지나 廣寧까지 200여리에 이르는 진흙 수렁 지역, 이른바 '遼澤'을 지나야 했다.[42]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마실 물[淨水]이 부족한 점도 문제[43]였지만, 遼澤의 무서움은 "장마가 지면 육지로 배가 다닐 지경"이라는 교통의 난점이었다. 조선 사행들을 비롯하여 이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한 사람은 廣寧에 세거하던 李成梁(1526~1615)이었다.

> 萬曆 연간에 寧遠伯 李成梁이 이 사정을 조정에 보고하고 民丁을 크게 동원하여 牛莊으로부터 廣寧까지 큰 둑을 쌓았는데, 높이와 너비가 모두 두어 길이나 된다. 둑 북쪽에서 흙을 파온 곳은 壕가 되었는데, 이 壕로는 배가 다니고, 둑으로는 수레가 다닐 만하여 백성들이 몹시 편하게 여겼다.
>
> 신유년(1621, 광해군 13) 후로는 다시 수리를 하지 않아 간간이 무너졌고 해자[濠]의 물이 넘쳐 흘렀다. 남아 있는 둑도 몹시 좁아서 말 한 필도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 매양 장마철을 당하면 굽이마다 물이 막히고 곳곳에 수렁이며, 또 모기가 떼를 지어 사람이 왕래할 수가 없으나 이러한 깊은 가을에는 겨우 통행할 수가 있었다. 참으로 遼左는 죄인이나 살 땅이다. 河岸을 거닐면서 둘레를 돌아보니, 들과 하늘이 서로 맞닿고 사방에 산이라고는 없었다. 넓고 넓어서 마치 큰 바다 가운데에서 배를 탄 것과 같았다. 鶴野는 9,000리란 말이 과연 헛된 말이 아니었다.[44]

---

42) 許篈, 『朝天記』 갑술년(1574) 7월 18일, "牛家莊以後至盤山, 都是平曠之野, 一有霖雨, 水潘不流, 大爲行路之患."; 李元禎, 『歸巖集』 권12, 1670년 7월 23일, "牛家庄以西, 則地勢汚下, 道路沮洳, 每値潦雨, 人馬不通, 唐太宗東征之行, 築路濟師, 乃歎曰: '殆天所以限之'云."

43) 1594년 명군의 추가 파병과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주청하는 사행의 부사였던 崔岦은 아예 牛家莊부터 눈을 끓여 마시고 있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공연히 아랫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며 牛家莊 지역에서는 禁酒를 하기도 했다. 崔岦, 「牛家庄, 泉水甚惡不可飮, 取雪救渴, 次東坡汲江煎茶韻」, 『簡易集』 권7(한국문집총간 49집), "雪水當茶未要烹, 井渾無賴寸膠淸. 早知太潔非調鼎, 俄覺難盈愧挈缾. 渴甚思令喉得潤, 寒多怕入腹爲聲. 牛庄止酒應休怪, 醒醉常煩僕屢更."

www.kci.go.kr

이 지역에서 명나라의 지배력이 사라지면서 길 역시 무너지고 만다. 1621년 요동의 육로가 끊어지면서 조선의 사신들은 뱃길로 중국에 다녀와야 했다. 遼東半島 남단에서 바로 南下하여 登州로 가던 길은 袁崇煥에 의하여 渤海를 횡단하는 노정으로 바뀌었다. 해로사행의 초창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가지 않던 航路였기에 난파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렵사리 바다를 다시 건너 각화도에 상륙하면, 寧遠衛-山海關으로 이어지는 옛 육로 사행 노정으로 복원되었지만, 十三山이 포함된 廣寧 지역은 여전히 未踏의 땅이었다. 조선 사신이 十三山을 다시 밟은 것은 瀋陽으로 가던 사행이 다시 北京이 종착지가 된 1645년 사행이었다. 20여년 만에 遼陽→鞍山→耿家庄→牛家庄→盤山→廣寧으로 이어지는 '遼澤'를 관통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성경봉천부가 설치되는 1665년부터 통행할 수 없게 되고, 1679년부터 연행길은 遼陽에서 북행하여 盛京→邊城→巨流河(周流河)→白旗堡→二道井→小黑山→廣寧→閭陽驛→石山站(十三山)의 노정이 확정된다.

1656년 麟坪大君의 행차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遼澤을 체험한 몇 안 되는 기록이다.

> 저물녘에 高平驛 첫째 墩臺를 지나서 노숙했다. 부사는 성안에 들어가서 잤는데, 허물어진 성에는 겨우 유민 두세 집이 있을 뿐이었다. 火手가 들오리 한 마리를 바쳤다. 큰 들 서쪽 머리에 먼 메 뿌리가 아득하여 모양이 마치 칼날과 같았다. 이는 곧 十三山이 큰 들판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그 뾰족한 봉우리가 처음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눈을 씻고 보지 않는 자가 없었다.[45]

> 저물녘에 十三山에 도착하여 천총의 집에 유숙했는데, 下程을 바쳐 왔다. 무너진 성 안팎에는 인가가 쓸쓸했다. 대개 城을 十三山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성 남쪽 5리 밖에 醫巫閭山 한 줄기가 큰 들 가운데에 떨어져서 불끈 솟아 玉芙

44) 麟坪大君, 『燕途紀行』, 1656년 9월 3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번역DB를 가져옴. 이하 마찬가지.

45) 麟坪大君, 『燕途紀行』, 1656년 9월 4일, 暮過高平驛, 第一墩臺露宿, 副价入宿城中, 毁城僅有流民兩三家, 火手呈一野鴨. 大野西頭, 遠岫縹緲, 狀如劍銛, 是迺十三山, 長在大野中, 始見尖峰, 人莫不拭目.

www.kci.go.kr

蓉 13개를 이루어 海口를 막았기 때문이다. 아련히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가 넓은 들 가운데 빼어나 그 모양이 특이하게 기이했다.[46]

멀리 서쪽으로 보이는 칼끝 같은 산봉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디가 끝인가를 알 수 없던 遼澤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물론 麟坪大君의 행차는 중간 경유지인 廣寧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北行을 해야하는 처지이지만, 괴로운 구간의 끝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너무나 반가운 존재가 모습을 보이자 일행들은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遼澤을 경유한 사람들에게 十三山은 객관적으로만 관찰할 수 없는 조건의 산이기도 하였다.

一板門에서 二道井에 이르는 구간 역시 여름에 지나던 사행은 배를 타고 지나갈 정도였고, 동지사의 귀환길에는 얼었던 곳이 녹아 진흙탕이 되었다. 자신의 체험만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그 긴 구간이 힘들게 느껴졌다. 그래서 1787년에 十三山을 지나던 俞彦鎬(1730~1796)는 예전에 遼澤으로 관통하던 그 힘든 길이 심양을 경유하는 이 길보다 90리나 더 짧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청나라가 일부러 조선 사신들을 괴롭힌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명나라 때부터 있어온 유구한 전통이었다.[47] 북경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 사행은 十三山에서 先來軍官을 보내는데, 그들은 瀋陽까지 북상하지 않고 바로 遼澤을 횡단하여 遼陽을 경유하여 귀국했다.[48]

---

46) 麟坪大君, 『燕途紀行』, 1656년 9월 6일. 暮投十三山, 館于千摠家, 呈下程. 毁城內外, 人家蕭條, 蓋城以十三山爲號者, 以城南五里遠巫閭一脉, 落于大野中, 聳作玉芙蓉十三, 以防海口故也. 縹緲尖峰, 秀出曠野中, 其狀絕奇.

47) 俞彦鎬, 『燕行錄』, "超過於新民屯, 午炊于朱姓人店, 又過一二三四五六臺子, 至十三山. 盖醫巫閭南走大野, 陡起爲十三峯, 高低羅列, 其西南有路, 通牛家庄. 在前貢道, 自遼東直抵牛庄, 則不過爲百五十里, 而康熙己未爲置海防, 設堡於牛庄, 遂改今路, 比前迂回九十里云. 又見『明史』, 成化中, 朝鮮請改貢路, 劉大夏以爲貢路, 自鴉鶻關, 出遼陽, 經廣寧, 過前屯而入山海, 迂回三四大鎭, 此祖宗御意也. 今若自鴨江, 直抵前屯·山海, 則其路太徑, 恐貽他日憂, 竟不許. 我國貢路之不許由徑, 自明朝而已然, 其來盖久矣. 宿于孟姓人家, 是日行八十里, 自義州至燕京, 此爲半程云."

48) 黃梓, 「過瀋錄」, 『甲寅燕行錄』 권1, "昔年使行皆由此路, 今則只先來軍官 由此路而歸云."

www.kci.go.kr

Ⅴ. 가문 의식의 발로

北京을 다녀오는 사행길은 苦役이었지만, 그렇다고 三使의 일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례사절인 冬至使는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현안을 요청하는 奏請의 경우, 현재 지위는 물론 官歷과 經綸, 文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따진 뒤에 신중히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使臣으로 人選된 뒤에 갈리지 않고 使行을 다녀오는 일은 수고로움을 넘어서는 영광의 길이기도 하였다. 十三山은 고려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遼澤을 가로지르는 명나라 때의 노정은 물론 遼陽-瀋陽을 거치는 청나라 때의 노정에서도 地名 변화 없이 지속된 터라, 累代에 걸쳐 사행에 나선 家門의 후예들은 先祖들이 남긴 燕行詩文을 지니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先人들이 지은 詩에 次韻하면서, 스스로 가문의 일원임을 밝혔다. 특히 '十三'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연을 내세우는 공통점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十三日到十三山　십삼 일에 십산산에 도착하니
此去何時幹事還　이곳 떠나 언제나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나
聞道故人先復路　듣자니 옛사람들이 귀국길에 선래 보내는 곳
定知今夜宿東關[49]　오늘 밤에는 동관역에서 자겠구나.

衰年遠役極辛艱　늘그막에 사신 행차 너무나 고생스러우나
先子遺詩感涕看　선친께서 남긴 시 감동하여 눈물 흘리며 본다
前後臘天經此地　앞뒤로 섣달 추위에 이 땅을 지나니
十三日又十三山[50]　십삼 일에 다시 십삼산이구나.

長途從古客行艱　긴 여정 예로부터 사신 길 괴로우니
臘後光陰卷裏看　섣달의 시간을 책 속에서 본다

49) 趙泰采, 「寄回還謝恩副使權台有道」, 『二憂堂集』 권1(한국문집총간 176집).
50) 趙觀彬, 「先子燕行詩, 有'十三日到十三山'之句, 今行亦十三日也, 書此志感」, 『悔軒集』 권7(한국문집총간 211집).

www.kci.go.kr

六十年來三世跡　육십 년 동안 세 세대의 행적
十三日到十三山[51]　십삼 일에 십삼산에 도착했네.

'노론 사대신' 가운데 한 명인 趙泰采(1660~1722)는 1713년 冬至使가 되어 金相稷, 韓祉와 함께 북경으로 가면서 12월 13일에 十三山에 도착하여 묵었다.[52] 그날 밤에 같은 해 7월에 출발했던 謝恩使 일행[53]이 복귀하면서 보낸 先來軍官이 十三山에 도착했다.[54] 韓祉는 이들에게 집에 보내는 편지를 맡겼고, 趙泰采는 그날 밤 東關驛에서 머물고 있을 權尙游(1656~1724)에게 줄 시를 썼다. 趙泰采와 權尙游는 일찍이 숙종 25년 己卯科獄에서 소론의 명망가 吳道一을 배척하던 일부터 시작하여, 연행하기 1년 전 숙종 38년 소론을 겨냥한 壬辰科獄을 함께 주도하던 강경 노론 집단의 일원[55]이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寧遠城에서 만나게 되고, 이때 權尙游에게 시가 건네졌을 것으로 보인다.[56] 다음날 발걸음도 가볍게 귀국하는 사은사행을 바라보면서 마냥 부러워하는 韓祉만큼은[57] 아니었지만, 趙泰采 역시 承句에서 혹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행 임무가 고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

51) 趙榮順, 「王考忠翼公癸巳燕行, 以十二月十三日到十三山, 有詩曰'十三日到十三山'; 仲父悔軒公乙丑之行, 又是十三日, 而有'十三日又十三山'之句矣. 今行亦十三日也, 六十年三世之行, 每値是日, 似非偶然, 遂感次其韻」, 『退軒集』 권3(문집총간 속89).

52) 趙泰采는 연행을 시로 남겨 날짜와 노정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서장관 韓祉의 연행록이 있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韓祉, 『韓祉燕行日錄』, "(癸巳十二月)十三日丙戌, 晴. 早發過興隆店·雙河堡·壯鎭堡, 朝飯于閭陽驛, 過多少臺子, 到十三山, 宿閭家. 是日行七十五里."

53) 『숙종실록』 39년 7월 28일, "謝恩使臨昌君焜·副使權尙游·書狀官韓重熙, 如淸國."

54) 韓祉, 『韓祉燕行日錄』, "夜初更, 謝恩使先來軍官卞三元·元百揆·譯官鄭世徽等出來, 略聞彼中消息, 仍付家信."

55) 우인수, 「조선 숙종조 科擧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130, 한국사연구회, 2005, pp83-121.

56) 韓祉, 『韓祉燕行日錄』, "(癸巳十二月)十五日, (중략) 到寧遠城, 逢着謝恩使回還之行, (중략) 謝恩使行【上使臨昌君焜·副使權尙游·書狀韓重熙】相遇於異域, 一室團會, 邂逅難狀".

57) 韓祉, 『韓祉燕行日錄』, "(癸巳十二月)十六日, (중략) 謝恩三使, 皆來顧回作別, 見其回軫故國, 飄然若輕鳧之翔, 分背之際, 不覺欽羨."

www.kci.go.kr

게 보면 趙泰采의 十三山 시는 사실 13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고위직 사신의 심상한 燕行詩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13'이라는 숫자들이 더해지면서 의미가 가중되었다. 趙觀彬(1691~1757)은 1745년에 동지사로 북경에 가면서 十三山에서 아버지와 감동적으로 조우한다. 아버지가 남긴 '13일에 十三山에 도착했다[十三日到十三山]'는 시구와 符合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기사절인 동지사행은 출발일이나 도착일, 노정과 이동 속도가 일정했고, 장마와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일이 없는 겨울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같은 우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趙觀彬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아버지가 연행하던 때의 나이와 비슷했다. 30여년 동안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부친은 辛壬士禍에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거기에 연루되어 죽다 살아난 터였다.[58] 정국이 바뀌면서 자신을 비롯한 노론 세력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버지의 신원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文衡을 맡는 등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위을 확보한 뒤에 아버지와 같은 자격으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結句의 '又'는 이런 투쟁과 승리의 경험, 그리고 가문의 영속성에 대한 자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59]

다음 세대인 趙榮順(1725~1775)에 이르면 우연은 필연으로 바뀐다. 祖父와 仲父를 이어 자신까지 13일에 十三山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趙泰采의 둘째 아들이 趙觀彬, 셋째 아들 趙謙彬의 둘째 아들이

58) 趙泰采와 같은 노론 사대신으로 불리던 李頤命, 金昌集 등은 父子가 모두 사사당했다.

59) 趙觀彬의 연행시는 모두 146제 197수가 실려있다. "大地詩篇四百餘"(「還家」)라는 언급을 통해 400여 편의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집 편찬 과정에서 산삭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기는 趙觀彬의 연행시를 관류하는 특징으로 大明義理 내지 청에 대한 復讐雪恥로 들었다. 김남기, 「悔軒 趙觀彬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6, 한국한시학회, 2012, p.185. 김형술은 '趙觀彬만큼 시종일관 집요하게 정치적 불우함과 불평심을 표출한 작가를 조선조 문인에게서 찾기 어렵다'며, 그의 한시 특징을 '椒林體'와 연결시켰다. 김형술, 「悔軒 趙觀彬의 한시와 椒林體」, 『우리문학연구』 55, 우리문학회, 2017, p.97.

www.kci.go.kr

趙榮順이다. 趙泰采 이후 이 가문의 남자들은 중앙 요직에 진출하는 한편 사사도 당했고 유배도 잦았다.[60] 趙榮順 역시 李天輔(1698~1761)를 탄핵했다가 제주 대정현과 해남에서 2년(1654~1655)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터였다. 문집 권3에 〈燕行拜表日 ……〉 부터 〈余於留館在路 ……〉 까지 모두 56제의 燕行詩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15편이 趙觀彬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趙榮順이 여섯 살 때에 부친 趙謙彬이 사망했으므로, 仲父 趙觀彬을 매우 존숭했을 것이다. 이때 趙榮順은 자제군관으로 아들 趙貞喆을 데려갔는데, 仲父의 시를 차운하여 父子가 聯句를 짓는 대목도 보인다.[61] 이렇게 보면 3대가 아니라 4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趙榮順에게는 趙榮克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는 셋째 趙鼎彬에게 출계되어 趙泰采의 적통을 이었다. 趙榮克의 아들이 趙宗喆, 趙宗喆의 큰아들이 趙鎭翼, 趙鎭翼의 큰아들이 趙斗淳(1796~1870)이다.[62]

王程跋涉古猶艱　사신 행차 옛부터 힘들었나니
異會曾從卷裏看　기이한 만남 일찍이 책속에서 봤다네
六十年來三世蹟　육십 년만에 삼세의 자취있나니
十三日輒十三山[63]　십삼 일에 다시 십삼산이구나

鴨綠江을 앞에 두고 120년 만에 가문의 영광을 계승하는 길에 나서고 있음을 자부하던[64] 趙斗淳은 十三山에 이르러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자

60) 박동욱, 「靜軒 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p.10.

61) 趙榮順, 「松站, 次仲父燕行集中韻, 與貞兒聯句」, 「孤家店, 次仲父燕行集中韻, 與貞兒聯句」, 『退軒集』 권3(한국문집총간 속89집).

62) 趙斗淳, 「先父君行狀」, 『心庵遺稿』 권23(한국문집총간 307집)

63) 趙斗淳, 「二憂先祖, 癸巳燕行, 以臘月十三日, 到十三山, 有'十三日到十三山'之句, 悔軒乙丑, 退軒辛卯, 俱以是日到此, 並用是句, 而悔軒更到以又, 退軒更又以復, 三世遺集, 燦然有作述之美, 而小子今行以初六日過此, 盖挽近使事, 視前稍早發而然耳. 俯仰今古, 不禁愴結之私, 遂書此志之」, 『心庵遺稿』 권3(한국문집총간 307집)

64) 趙斗淳, 「抵灣, 用老杜江間波浪兼天湧, 塞上風雲接地陰, 分作古體, 凡城池關防, 感古悲今, 以至憶弟懷人, 隨意寫去, 無所倫次, 盖亦牢騷中一事爾」, 『心庵遺稿』 권23(문집총

www.kci.go.kr

신은 비록 선조들과 달리 초6일에 도착했으나, 3대 만에 다시 十三山에 도착한 것이다. 조부는 縣監, 부친은 牧使에 그쳐 사행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 비로소 그곳에 도착해 '오래전 그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사행 노정 곳곳에서 '二憂先祖[趙泰采]'의 자취를 찾았고, 그곳에서 지었던 시에 次韻했던 터였다.[65] 趙泰采를 숭모하던 趙斗淳은 老論 四大臣 가문의 일원인 安東金氏는 물론 外戚인 豊壤趙氏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興宣大院君에게 신임을 받아 마침내 영의정에 올라 완벽하게 家格을 회복하였다.

趙泰采 가문처럼 부자간에 대를 이어 간 경우는 아니지만, 13이라는 숫자가 중첩된 것을 계기로 가문의 어른을 소환한 경우가 또 있다. 1831년 자제군관으로 북경을 다녀온 韓弼教(1807~1878)가 그런 예이다.

> 여양역 서쪽으로 30리를 가면 望山鋪가 있다. 그 왼쪽은 十三山이다. 옛날 우리 선조 忠靖公(韓應寅)께서 宣祖의 일로서 누차 사신으로서 명령을 받들어 가시니, 그 시에 "십 년 동안 십삼산을 세 번 지나니〔十年三過十三山〕"라는 구절이 있었다. 지금 내가 여기를 지나니 나도 모르게 감흥이 있어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남쪽으로 가다가 1리를 채 못 가서 바람이 갑자기 크게 불어 모래와 돌이 흩날려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이에 삿갓을 벗고 지팡이를 끌며 한 걸음에 몇 번을 넘어지면 늦게 산 밑에 다다르니, 대개 이 산이 모두 돌로 된 봉우리인데다 높이가 몇 백 길이면서 의지하여 붙을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66]

간 307), "三世詩集幾千韻, 強半幽燕道中拈, 小子叨塵何能役, 百二十年曾不淹.【二憂先祖, 以肅廟癸巳辛丑再聘燕, 仲高祖悔軒公, 仲曾祖退軒公, 以英廟乙丑辛卯, 先後爲上副行人. 今距癸巳, 爲百二十四年】"

65) 趙斗淳, 「宿西京, 敬次二憂先祖燕行到箕城漫吟韻, 卽先祖按節地也」, 「遼陽城, 敬次二憂先祖韻」, 「永平府, 敬次二憂先祖韻, 是地爲漢右北平, 因思李將軍事, 書之」, 「二月二日發燕京, 次二憂先祖發燕京韻」, 『心庵遺稿』 권23(문집총간 307).

66) 韓弼教, <十三山>, 「遊賞隨筆」, 『隨槎錄』, "閭陽驛西三十里, 有望山鋪, 其左則十三山也. 昔我先祖忠靖公, 當宣廟有事, 屢奉使出彊, 其詩有'十年三過十三山'之句, 今余過此, 不覺興感, 舍車而徒. 南行未一里, 風忽大作, 沙石飄揚, 莫可前進, 乃脫笠曳杖, 一步屢躓, 而後抵山下, 蓋是純石爲峯, 高幾百仞, 無所附麗". 번역은 김현미·조창록 역, 『국역 수사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p.196 참조.

www.kci.go.kr

十年三過十三山　십 년 동안 십삼산을 세 번 지나니
危鬢空凋道路間　속절없이 머리 센 건 길 위에서라네
最是思君愁絕處　임금님 그립고 걱정됨이 최고였던 이곳
彩雲閶闔阻躋攀[67] 구름 문장 대궐문이 가는 길을 막았다네.

韓邸敎의 10대조인 韓應寅(1554~1614)은 선조가 영창대군을 부탁한 遺敎七臣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1584년 宗系辨誣를 위한 奏請使의 書狀官, 1591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進奏使, 1595년 光海君의 세자 책봉 奏請使, 1599년 왜란에 援兵을 보내준 것에 대한 謝恩使 등 모두 네 차례나 북경을 다녀왔다. 인용한 시는 세 번째 사행의 귀국길에 지은 시이다. 선조는 韓應寅에게 왜적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병든 자신을 대신하여 신민들의 의지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급하게 임무를 완성할 것을 주문했지만[68], 결국 이 책봉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려 임금의 전교에도 불구하고 韓應寅이 느슨하게 사행에 임한다는 비판이 그가 국경을 넘어서기 전부터 빗발쳤을 정도로 논란의 사행이었다.[69]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韓應寅은 귀국길의 절반인 十三山에 이르러 10년 동안 3번이나 北京을 다녀오는 수고로움과 함께 임금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韓邸敎에게 先祖의 실패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70] 더군다

67) 韓應寅, 「十三山城外」, 『百拙齋遺稿』 권1. 이 시는 2수로 되어 있고, 인용한 시는 제 2수다. 번역은 김현미·조창록 역, 위의 책, p.196. 제 1수는 요택을 지난 끝에 만난 높고 푸른 봉우리에서 선인을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풍경 묘사가 주를 이룬다. "纔渡長河又見山, 碧峯高揷白雲間. 臨風更欲邀仙侶, 笙鶴迢迢不可攀".

68) 『선조실록』 28년 12월 25일(계해).

69) 『선조실록』 29년 2월 24일(신유); 2월 25일(임술); 2월 26일(계해); 2월 28일(을축); 2월 29일(병인)

70) 조선 조정은 광해군을 왕세자로 결정한 1592년부터 1604년까지 13년간 모두 다섯 차례의 세자 책봉 주청사를 북경으로 보냈는데, 그때마다 모두 거절당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광해군이 둘째라는 이유였지만, 신종이 아직 황태자를 세우지 않은 상황이라는 명나라의 내부 요인이 더 강했다.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pp.71-72.

www.kci.go.kr

나 光海君은 暴君으로 쫓겨난 왕이었으므로, 외려 韓應寅의 주청이 성공했다면 더 복잡한 심경이 토로되었을 것이다. 사행 당시 韓弼教의 나이는 25세, 정사 洪奭周(1774~1882)의 사위였다. 洪奭周는 외아들 洪祐謙(1808~1826)이 일찍 죽자 하나뿐인 사위인 韓弼教를 아들처럼 여겼고, 자제군관으로 연행에 데리고 나섰던 것이다. 조상의 고심처에 선 후손은 감히 편하게 갈 수 없어 수레에서 내려 걸었다. 韓弼教는 모래와 돌이 날리는 모진 바람에 넘어지면서도 끝내 걸어서 十三山 아래까지 나아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연행에서 돌아와 진사시에 합격한 韓弼教는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1839년에는 進賀使의 서장관이 되어 다시 연행했다. 다만 이때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十三山을 지나면서 큰 감흥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韓弼教는 1837년에 韓應寅의 연보를 개정했고, 1839년에는 장인 洪奭周로부터 그 序文을 받았던 터였다. 결국 1869년에 간행된 『百拙齋年譜』의 乙未年의 주청 사행 항목에 다시 '十年三過十三山'이라는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71] 결국 '10년 동안 3번이나 十三山을 지났다'는 韓應寅의 푸념 섞인 자긍은 十代孫 韓弼教에게는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Ⅵ. 雲雨之夢을 꿈꾸며

연행길의 절반에 이른 상황에서 그리운 대상은 부모님이기도 했지만 '雲雨之夢'을 꿈꾼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행의 국내 노정에서는 각 관아의 官妓들이 수청을 들었는데, 비단 三使뿐만 아니라 사행의 여러 구성원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었다. 심지어 기녀의 수가 적은 곳에서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접대 문화가 중국 땅으로 넘어오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었다. 『芝峯類說』이나

71) 『百拙齋年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1면b-22면a.

www.kci.go.kr

『於于野談』에 실린 일화를 보면 당시 北京에서는 조선인의 娼樓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그 처벌 또한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72]

奇峯秀出十三山　기이한 봉우리가 솟구쳐 나온 십삼산
天借奇工戲土團　하늘이 기이한 공을 빌려 흙더미를 희롱한 것
楚臺雲雨多飜覆　초왕의 陽臺에 구름과 비는 번복이 심하니
却訝移來剩一鬟[73]　계집아이 쪽진 머리 하나 옮겨놓았나 의아하네.

1699(숙종 25)년 11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3월에 복명한 동지부사 姜銑(1645~?)은 十三山을 읊으면서 雲雨之夢을 언급하였다. 초창기 陳澕의 시에서 제시된 '巫山'과 '陽臺'의 고사는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姜銑을 특기한 이유는 그가 十三山 시를 짓기 앞서 弱小國으로서 청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굴욕과 함께 명나라의 복귀를 강하게 희구하는 노래를 지었기 때문이다.[74] 姜銑의 이중성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하루 혹은 며칠 사이에 '雲雨之夢'와 '復讐雪恥'가 공존하는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의 연행 산문에서 흔히 관찰된다. 十三山에서 '雲雨'를 이야기한 뒤에 松山이나 杏山 등 명청교체기에서 다시 復讐와 雪恥를 다짐하는 식이다. 이는 '역사'라는 의식의 영역과 '성'이라는 무의식의 영역이 무시로 교체되는 여행자로서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十三山이 갖는 이미지와 장소성이 서슴없이 무의식 속에 있던 성적 욕망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十三山이 단지 사행로의 중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인의 쪽진 머리'로 十三山을 묘사하는 것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1678년(숙종4) 3월 康熙帝의 繼室 孝昭皇后(1655~1678)의 상사에 대한

72) 신익철, 「연행사와 養漢的-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p.34.

73) 姜銑, 『燕行錄』 己卯年 12월 12일. 번역은 강선, 이종묵 역, 『국역 연행록』, 국립중앙도서관, 2009.

74) 姜銑, 앞의 글, "應知白水佳祥在, 佇看黃河此日淸. 弱國年年皮幣辱, 漢庭誰是請長纓."

www.kci.go.kr

陳慰兼進香使로서 부사 鄭樸, 서장관 安如石과 한양을 출발한 李夏鎭(1628~1682)은 같은 해 8월에 복명했다. 황후의 상사에 弔問하는 엄중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는 기대, 흥분, 객수, 그리움과 같는 내면 정서는 물론 중국의 人物과 風情이 곡진하게 표출되어 있다.[75]

雪搓肌膚雲搓髻　눈 같은 피부에 구름 같은 쪽진 머리
耳珠垂却兩三環　귀에는 두세 개 귀걸이 드리우고
對人無語弧犀啓　사람보곤 말없이 고운 이마 내비치니
錯認燕支作漢山　미인은 漢族에만 있는 줄 잘못 알았네.

八字雙眉學遠山　여덟팔자 두 눈썹은 먼 산을 닮았고
曉窓輕理綠雲鬟　새벽 창 아래서 가볍게 쪽진 머리 다듬는데
香衫不掩纖纖手　고운 적삼 여린 손을 가리지 않아
半露簾間玉指鐶[76]　반 쯤 열린 주렴 사이로 옥지환이 보이네.

李夏鎭은 본래 『皇朝十六朝紀』에 잘못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癸亥靖社> 기사의 수정을 요청하는 奏請 사행의 副使로 파견되었다가, 중간에 皇后의 부음이 전해지면서 정사 福平君 李樫을 대신하여 陳慰兼進香使로 진급하여 파견되었다. 조부 이래로 사행을 다녀왔던 터였고, 오랜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許積의 반대로 연행이 어그러지려던 찰라 숙종의 결단에 의해 선정될 정도로 어렵게 나선 상황이었다.[77] 그런만큼 그는 금기없이 속내를 드러내었다. 李夏鎭은 浪子山을 앞둔 지점에서 만난 청나라 여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여인의 얼굴을 노래하고 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여인이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하였고, 귀를 뚫어 구슬

75) 왕복 5개월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사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563題 663首의 시를 지었다. 윤재환, 「少陵家의 使行 經驗과 詩的 形象化－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鎭·梅山 李夏鎭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연구』31, 동양한문학회, 2010, pp.218-219.

76) 李夏鎭, <途中記所見>, 「北征錄」, 『六寓堂遺稿』 冊1(문집총간 속39).

77) 李瀷, 「先考司憲府大司憲府君行狀」, 『星湖全集』 권67.

www.kci.go.kr

로 된 귀거리를 두세 개 걸고 있다. 그녀는 조선 사람과 마주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온전히 얼굴 전체를 보여주었다. 李夏鎭은 한족 여인만 아름다운 줄 알았지만, 오랑캐 여인[燕支]도 미인이라며 마무리지었다. 두 번째 시에서 좀더 노골적으로 여인을 관찰하고 있다. 時點은 명확하지 않지만 視點은 분명하다. 기구의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처럼 그린 듯 부드러운 팔자눈썹은 첫 번째 시의 시상을 그대로 가져왔고, 승구는 눈앞에 보이는 쪽진 머리의 아름다움을 새벽녘 비단 창문 너머로 빗질하고 있는 여인의 실루엣으로 대체한다. 李夏鎭의 시선은 마침내 주렴 사이로 노출된 그녀의 손, 그리고 적삼 자락 밖으로 나온 그녀의 섬섬옥수와 그녀가 가진 모든 아름다움이 집약된 玉指環으로 향한다. 이제 오랑캐 여인은 '미인'으로 변모하였다. 李夏鎭이 이 오랑캐 여인의 외모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선을 준 곳은 '쪽진 머리'였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層巒不計數　산봉오리 숫자 헤아리지 않아
錯訝是巫峯　무산십이봉으로 잘못 알았네
偶得楚王夢　우연히 초왕의 꿈을 꾸니
怳如神女逢　황홀하여 신녀를 만난 듯
漢皐初解佩　漢皐臺에서 처음 패옥을 풀어주더니
洛浦更無蹤　낙포에서 다시 종적 없구나
睡起看山色　자다 일어나 산빛을 보니
十三蒼翠重[78]　열세 봉우리 푸르디 푸르구나.

李夏鎭은 十三山에 대해서는 북경으로 갈 때 3편, 귀국할 때 2편, 도합 5번이나 노래했다. 북경으로 갈 때에는 주로 '十三山'이라는 이름이나 산세를 노래했지만[79], 귀로에서는 드디어 神女와의 만남을 노래하고 있다. 꿈 속의 그녀는 漢皐臺 아래에서 패옥을 풀어주며 재회의 여지를 주었지

78) 李夏鎭, 「十三山記夢」, 『六寓堂遺稿』 冊2(문집총간 속39).
79) 李夏鎭, <詠十三山>, 「北征錄」, 『六寓堂遺稿』 冊1(문집총간 속39), "平地居然忽有峯, 十三層壁略相同. 歸來恐致眞形爽, 急展霜縑與畫工."

www.kci.go.kr

만, 다시 만난 洛浦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郭璞의 「江賦」와 曹植의 「洛神賦」를 가져와 十三山 구역을 통과하는 수레 속에서 꾼 황홀한 백일몽을 이야기하고 있다.

十三山에서 기녀나 여인을 소환하는 경향성에서 朴趾源(1737~1805)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이미 通遠堡에서 여인의 대화에 이끌려 아리따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가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하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80] 朴趾源은 十三山에 대해 따로 구체적인 묘사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十三山에서 大陵河店에 이르는 30리길을 護行通官 雙林과 동행한 일화를 적고 있다. 雙林은 朴趾源과 그의 하인 張福을 자신의 좌우에 앉혔다. 그리고 직접 수레를 몰면서 자신은 조선말로 張福은 중국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공교롭게도 의주 기생이 소환되었다. 雙林의 질문에 張福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楊貴妃와 西施처럼 생긴 기녀, 꽃과 달처럼 아름다운 柳色, 창을 잘하는 春雲이 호명되었다.[81] 시를 짓지 않는 朴趾源이 十三山을 대하는 방식으로 읽힌다.

Ⅵ. 맺음말

十三山은 현재 중국 遼寧省 石山鎭 지역으로, 압록강부터 북경에 이르는 노정의 중간 지점에 있다. '十三山'이라는 명칭은 驛站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13개 내외의 산을 지칭한다. 13세기 초에 金나라를 다녀

80) 朴趾源, 「渡江錄」 7월 1일, 『熱河日記』.

81) 朴趾源, 「馹汎隨筆」, 『熱河日記』, 『燕巖集』 권12(문집총간 252), 雙林曰: "義州妓生幾個?" 張福曰: "也有三五十個." 雙林曰: "多有美的麼?" 張福曰: "奢遮的, 道甚麼, 也有楊貴妃等物也, 有西施等物, 有名柳色的, 也有羞花惹月的態, 有名春雲的, 也有停雲斷腸的唱." 雙林大笑曰: "有如此妓生, 而出敕時, 何不現身?" 張福曰: "若一看見時, 大監們魂飛九霄雲外, 手裡自丟了萬兩紋銀子, 渡不得這鴨綠江來哩." 雙林拍掌胡盧道: "吾前頭隨敕時, 你能悄悄地引來了." 張福掉頭曰: "不完了! 有人覺時, 開頭也." 兩人俱大笑, 如此問答而行三十里.

www.kci.go.kr

왔던 陳澕의 언급 이후, '十三山'은 明나라에서 淸나라에 이르기까지 北京을 다녀오는 조선 사신들이 남긴 詩文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13'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독특한 이름과 요동벌(요동평야)의 끝에 우뚝 솟은 지형을 두고 사신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사행 노정을 걸으면서 驛村 주위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의 숫자를 직접 헤아려 보고, 이름의 정확성 여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별 봉우리의 높이나 체적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13개가 될 수 없다고 '十三山'을 부정하였다. 그러다가 北京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마주했을 때에는 13개가 맞다며 처음 견해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봉우리 숫자에 따른 명명법을 부정한 사람들은 '돌산'을 뜻하는 '石山'(shíshān)이 중국어로 발음이 비슷한 '十三'(shísān)으로 와전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3대에 걸쳐 사신으로 선발되었고, '13일'에 '十三山'을 통과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게 된 趙泰采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대중사행 업무를 수행한 선조들의 노고와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고자 했다. 韓弼教 역시 十三山에서 10년 동안 3번이나 사행을 하고 있다는 10대조 韓應寅의 싯구를 떠올렸고, 연행을 마친 뒤에는 선조의 年譜를 간행하는 일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遼陽에서 瀋陽으로 북상하는 노정이 확정된 17세기 후반 이전에 海州-牛家庄-廣寧으로 이루어진 노정으로 이동해야 했던 시기의 사신들은 遼澤이라 불린 긴 습지를 통과해야했다. 앞서 명청교체기에 廣寧의 주둔군들이 긴 둑을 설치하여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자연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여러 번의 범람으로 둑은 흔적으로만 남았고, 진흙탕을 통과하는데 지친 조선 사신은 육로를 海路처럼 인식하게 되었고, 그 고통스러운 지대의 끝에 위치한 十三山 봉우리를 '希望峰'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사신들은 마음의 안식을 고향이나 가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던 순간을 강하게 희구하기도 하였다. 楚나라 왕과 神女가 사랑을 나누었던 '巫山十二峯'은 13보다 하나가 많은데, 사신들은 이런 숫자의 유사성과 봉우리로 이루어진 풍경의 유사성을 가져와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했다. 이것은 외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장기간 동안

www.kci.go.kr

유예된 혹은 금지된 성생활에 대한 성적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강박이나 이념적 속박과 무관한 十三山은 조선 사신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성된 다양한 반응을 통해 외교라는 공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난, 여행으로의 使行이 갖는 한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www.kci.go.kr

〈參考 文獻〉

姜 銑, 『燕行錄』(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姜浩溥, 『桑蓬錄』.
高士奇, 『扈從東巡日錄』.
權 近, 『陽村集』(한국문집총간 7집).
金克成, 『金先生憂亭集』(한국문집총간 18집).
李宜顯, 『陶谷集』(한국문집총간 181집).
李夏鎭, 『六寓堂遺稿』(한국문집총간 속39집).
柳夢寅, 『於于集』(한국문집총간 63집).
俞彦鎬, 『燕行錄』.
李德懋, 『入燕記』.
李裕元, 『林下筆記』.
李海應, 『薊山紀程』.
李弘周, 『梨川相公使行日記』(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麟坪大君, 『燕途紀行』.
趙觀彬, 『悔軒集』(한국문집총간 211집).
趙斗淳, 『心庵遺稿』(한국문집총간 307집).
趙榮順, 『退軒集』(한국문집총간 속89집).
趙泰采, 『二憂堂集』(한국문집총간 176집).
蔡 珪, 『御訂全金詩增補中州集』(四庫全書本).
韓弼教, 『隨槎錄』.
洪貴達, 『虛白亭集』(한국문집총간 14집).
洪良浩, 『耳溪集』(한국문집총간 241집).
『金史』.
『東文選』.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김태준, 이승수, 김일환,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www.kci.go.kr

소재영, 조규익 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2004.
유몽인 지음, 김홍백·권진옥 옮김, 『어우집 5』, 학자원, 2018.
이규태, 『新열하일기』, 신원, 1997.
최 자 지음, 박성규 역주, 『역주 보한집』, 보고사, 2012.
홍귀달 지음,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김남이·김용철·김용태·김창호·부영근 옮김, 『허백정집 1』, 점필재, 2014.

김남기, 「悔軒 趙觀彬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12.
김동석, 「高麗末 權近의 使行과 그 의의」,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2017.
김성기, 「陳澕論」, 『한국한시작가연구』 1권, 한국한시학회, 1995.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漢文學報』 31, 우리한문학회, 2014.
김현주, 「高麗 明宗代 武臣使臣의 출현과 활동」, 『사학지』 56권, 단국사학회, 2018.
김형술, 「悔軒 趙觀彬의 한시와 椒林體」, 『우리문학연구』 55, 우리문학회, 2017.
박동욱, 「靜軒 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신두환, 「朝鮮 燕行錄에 나타난 '鳳凰山의 민족사 담론」, 『동방한문학』 58, 동방한문학회, 2014.
우인수, 「조선 숙종조 科擧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130, 한국사연구회, 2005.
윤재환, 「少陵家의 使行 經驗과 詩的 形象化－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鎭·梅山 李夏鎭을 中心으로」, 『東洋漢文學硏究』 31, 동양한문학회, 2010.
이성형, 「'廟島'와 '嗚呼島'에 對한 文學地理的 考察」, 『대동문화연구』 90, 대동문화연구원, 2015.
_____, 「『天槎大觀』의 『大明一統志』 受容樣相 考察－山東 陸路 區間을 中心으로」, 『漢文古典硏究』 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_____, 「麗末鮮初 對明 使行詩의 '淮揚運河 區間' 形象化 樣相」, 『漢文學論集』 43, 근역한문학회, 2016.
_____, 「明·淸 交替期 對明 海路 使行의 出港地 考察」, 『漢文學論集』 48, 근역한문학회, 2017.

www.kci.go.kr

_____, 「明·清 交替期 對明 海路 使行의 內陸 主要 分岐處 考察」, 『민족문화논총』 66, 민족문화연구소, 2017.
_____, 「燕行錄의 伯夷 · 叔齊 관련 漢詩 硏究-壬亂 收拾期를 中心으로」, 『漢文學論集』 31, 근역한문학회, 2010.
_____, 「燕行詩에 나타난 '東八站 區間' 認識樣相 考察-壬亂 收拾期를 中心으로」, 『漢文學論集』 35, 근역한문학회, 2012
이승수, 「1609년 여름 柳夢寅의 燕行 길의 몇 장면-압록강에서 廣寧까지」, 『한국시가문학연구(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0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_____, 「고려말 對明 使行의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 19, 우리한문학회, 2009.
_____, 「燕行路上의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_____, 「연행로 중 '遼陽-鞍山-廣寧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_____, 「연행로 중 廣寧-山海關 구간의 노정 재구-百戰 벌판의 횡단과 역사 변동의 시각 체험」, 『역사민속학』 4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_____, 「연행로 중 遼陽~瀋陽 구간의 노정과 풍물-지리 감각의 갱신과 신흥 왕조의 체험」, 『고전문학연구』 50, 한국고전문학회, 2016.
_____, 「연행로 중 瀋陽~廣寧站 구간의 노정 재구」, 『民族文化』 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_____, 「연행로 중의 東八站 고」, 『한국언어문화』 4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_____,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 2, 通州~玉河館」,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018.
_____,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山海關~通州 구간」, 『국문학연구』 36, 국문학회, 2017.
_____, 「柳夢寅의 연행 체험과 중국 인식」, 『동방학지』 13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_____, 1790년 熱河 使行의 '二道井-熱河'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탐색」, 『고전문학연구』 40, 한국고전문학회, 2011.
한정수, 「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사학연구』 91, 한국사학회, 2008.

www.kci.go.kr

Abstract

Shisanshan, Halfway on the Envoys' Journey to Beijing

Kim Il-hwan*

Shisanshan(十三山) is about halfway between the Amnokgang River and Beijing, in present Shishan Zhen(石山鎭), Liaoning, China. Shisanshan is the name of the post station and indicates the 13 mountains in this area as well. From the time that Jin Hwa (陳澕) visited the Jin Dynasty as the envoy in the early 13th century and mentioned Shisanshan in his poem, 'Shisanshan' was continuously mentioned in writings and poems written by Korean envoys from the Mi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The envoys recorded some curious interest in and reactions to the unique place name made of the number '13 (Shisan)' and the geographical feature soaring high at the end of the Liaoning Plain. Some people discussed the accuracy of the name by counting the large and small mountains scattered in this area. Some pointed out that the number of mountains was not accurate and so '石山' (shíshān), meaning the 'stony mountain', was misunderstood as the name '十三(shísān)' because of a similar pronunciation (in Chinese). There was a family that traveled through 'Shisanshan' on the 13th every month for three generations. The descendants tried to remember the endeavors of their ancestors continuously visiting China for the envoys' mission and the honor of the family. Those who experienced the Japanese invasion in 1594 interpreted the number '13' as meaning the visit to the Ming Dynasty three times over 10 years. Before the late 17th century when the northward route from Liaoning to Shenyang was created, the envoys who had to follow the route from Haizhou through Ujiazhuang to Guangning recognized the peak of Shisanshan at the end of the long wetland called 'Liaoze' as the 'Peak of Hope'. The envoys, completely exhausted both in body and mind, wrote poems longing for their hometowns and families which seemed to appear when they came to the peak of the mountain. Some talked about the romantic love with the 'twelve peaks in Wushan'(巫山十二峯) with the king and the exorcist

* Researcher of Dongguk Univ. / chukong@hanmail.net

www.kci.go.kr

during the Chu period. Such description seems to unconsciously expose the sexual desire of sexual life suspend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diplomatic mission. A variety of reactions of Joseon envoys regarding the Shisanshan demonstrated the diplomatic mission as the journey of an envoy free from the historical awareness or the burden that the mission was the official duties.

【Key words】 Shisanshan(十三山), Shishanzhan(石山站), Shishanzhen(石山鎭), twelve peaks in Wushan(巫山十二峯), the diplomatic mission, the Envoys' Journey to Beijing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www.kci.go.kr

www.kci.go.kr